

Monthly 청렴 6월호(제83호)

간추린 청렴 소식

[1] 안산지청, '통합 열람·등사실' 개장



안산지청(지청장 강지식)은 '20. 5. 6. 다양한 열람등사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열람·등사실'을 설치하고 개장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안산지청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2] 제주지검, '청렴 화분 마니또 캠페인' 시행

제주지검(검사장 박찬호)은 '20. 4. 제비뽑기로 선정된 마니또에게 청렴문구가 적힌 탁상용 화분을 선물하는 '청렴 화분 마니또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청 내 청렴문화 확산은 물론 화훼농가 소상공인을 돕기위한 제주도 내 캠페인에 함께하며 위축된 지역 내수 진작에 이바지 하고자 시행했다고 하네요~

[3] 춘천지검, '청렴업무 전담팀 간담회' 개최

춘천지검(검사장 조종태)에서는 '20. 4. 28. '20년도 2분기 청렴 업무 전담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1분기 클린콜 점검결과 분석 및 개선논의 등 알찬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하네요 ^^

[4] 대구서부지청, '신규직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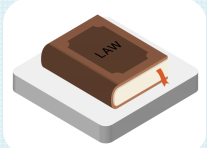
대구서부지청(지청장 한석리)은 '20. 5. 12.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알아두세요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20. 5. 27.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개정 전	개정 후
(제1항)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하고 외부강의를 미리 서면으로 신고 (사례금 수수여부 불문)	(제1항)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외부강의를 마친 날 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제2항) 미리 신고가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를 마친 날 부터 2일 이내에 서면 신고	(제2항) 삭제

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 감성충전, 청렴 명대사

"의무감이나 서약 때문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예스'가 자네를 변화시키는 거야"

영화 '예스 맨(Yes Man)' 중



6월의 추천 영화는

예스 맨

(2008년 개봉 / 감독 페이튼 리드)입니다.

아내와 이혼 후 매사 부정적인 마인드로 권태로운 삶을 살던 칼(짐 캐리 분)은 친구의 권유로 "Yes!"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고 얼떨결에 모든일에 "Yes!"라고 대답하기로 서약하게 된 후 일어나는 유쾌한 변화들을 통해 진정한 긍정주의자가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청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이나 규정 때문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준법 의식"과 "반부패 의지"를 실천한다면 우리사회도 진정한 청렴사회로 변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청렴 상식이 쑥쑥!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2020년 1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19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80여 개 국 중 3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10년 39위 이후, 2016년 52위까지 하락했던 순위가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자리를 되찾은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경제 규모에 걸맞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국가기관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한 이미지'와 '사회에 만연한 엘리트 카르텔'은 구성원간 신뢰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OECD 36개 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27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청렴 선진국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적인 청렴국가들은 정보공개 등 강력한 제도를 통해 의사 결정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사회적 신뢰의 훼손을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부정 부패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투명성이 절차의 공정을 담보하고, 구성원들의 높은 반부패 의식은 청렴사회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 법칙(New York Times Rule)'이라는 윤리원칙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이 다음날 아침 뉴욕타임즈 1면에 머리 기사로 보도 된다 해도 몇몇한지 생각해보고, 그 답이 'No'라면 실천에 옮기지 말라는 법칙입니다.



사회구성원 각자

위와 같이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든다면

우리도 좀 더 빨리 청렴 선진국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대검 검찰부 클린콜 센터에서는 방문 민원을 처리하는 4개 업무를 선정하여, 해당 업무 민원인에게 클린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클린콜 대상이 아닌 업무는 무엇일까요?

- ① 압수물 가환부 ② 사건기록 열람등사
- ③ 참고인증지 재기 ④ 범죄피해자지원

※ 힌트 : Monthly청렴 2020년 5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 응모기간 : 2020. 6. 22.까지
-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지난 5월 정답은 ② **신뢰** 였습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축!
당첨

최○○(고양), 김○○(서울서부), 조○○(서울중앙), 김○○(인천), 남○○(청주), 박○○(천안), 김○○(울산), 박○○(서울남부), 임○○(서울북부), 김○○(외부)



민원인의 목소리

민원인 의견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소장과 첨부자료를 등사하고 싶었는데 왜 못해주는지 아무런 설명없이 고소장만 해주었습니다. 일반인은 이유를 모를 수 밖에 없으니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인 통지만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민원인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에 대한 '규정'이나 '이유'를 설명하는 배려가 있었다면 민원인의 서운한 마음이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제가 청각이 좋지않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큰 소리로 두 세 번에 걸쳐 설명도 또박또박 잘해 주시고 친절하게 잘 처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택지청 열람등사(확정등) 담당자의 친절함을 칭찬하는 민원인 의견이었습니다. ♪

